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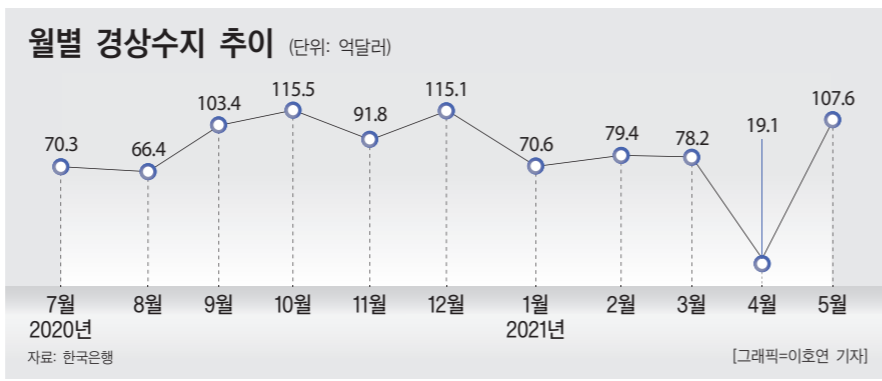
해외 배당수입 급증... 5월 경상수지 흑자 107.6억달러

전년 동월비 49.4억달러 확대
13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

5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이 급증한데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품목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1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작년 5월보다 85억2000만달러 급증한 107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합산한 것이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진을 겪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외국인 배당요인까지 겹쳐 3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보다 흑자폭이 85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를 이끈 것은 수출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품목에서 호조세가 이어졌다.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65억6000만달러(49.0%)가 급증한 50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5월중 석유제품 수출은 160.2% 늘었고 승용차(92.0%), 항공품(58.8%), 반도체(23.7%) 등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도 작년 5월보다 128억1000만달러(41.1%) 늘어난 476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석유제품(178.9%)을 비롯해 원유(165.8%), 비철금속(69.9%)과 광물(59.7%)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61.2%)한데다

기계류·정밀기기(20.6%) 등 자본재(19.1%)와 승용차(49.6%), 가전(17.4%) 등 소비자재(29.2%)가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5월(26억1000만달러)보다 확대된 6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입이 늘면서 전년 동월대비 적자폭이 9000만달러 축소된 5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 흑자는 11억9000만달러로 10억5000만달러나 크게 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나타냈다. 특히 5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작년 동월보다 284.4%나 뛰면서 운송수입이 35억7000만달러로 늘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서비스수

지는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됐음에도 운송수지가 역대 최대흑자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운송수지는 해상수출 화물 운임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해운사의 화물 운송량이 증가한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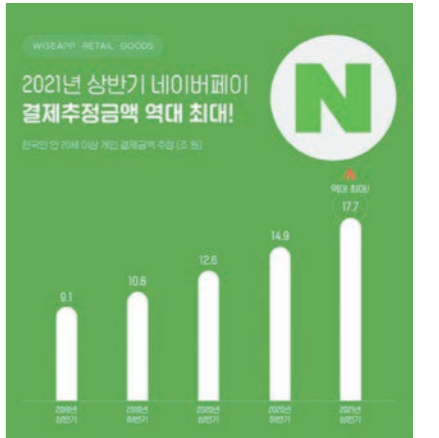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작년 5월보다 49억4000만달러 확대된 54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57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대비 45억1000만달러 폭증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전년 5월 적자에서 46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의 움직임은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5월중 83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34억4000만달러)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8억4000만달러)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사학 재미(해외 주식 투자자)' 열풍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43억8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채권 투자 증가에도 주식투자가 감소하면서 15억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원석 기자

네이버페이 상반기 결제금액 17조7000억원

작년 동기 대비 41% 늘어
1인당 평균 18.1만원 결제



모바일 앱 시장 분석 업체 와이즈엠은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를 통해 약 17조 7000억원이 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와이즈엠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월간 기준 결제 추정액은 올해 3월 3조원대를 기록했고, 지난달 3조1000억원 정도로 늘었다.

월간 결제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 사용자 수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1711만명을 기록했고, 이들은 월 평균 18만68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많았다. 6월 기준 연령별 결제금액 분포는 △20대

와이즈엠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 금액은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

17.4% △30대 37.5% △40대 26.0% △50대 이상 19.4% 등이었다.

와이즈엠은 만 20세 이상 개인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스마트폰스토어, 웹툰, 음악, 광고 등을 결제·충전한 금액을 측정했다.

김학형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직접 만나 편취', 전년보다 4.7배나 폭증

전체 피해 3만4132건 중 36% 감소와 대조
김병욱 의원, "신종수법 피해 막을 법 발의"

최근 계좌 송금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찾아 돈을 건네게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노린 '대면(인출) 편취 수법'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대면 편취 수법 사례가 전년 대비 4.7배(365%)나 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3만4132건→3만1681건)한 것과 대조된다.

현행법상 대면 편취 수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

용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자급의 송금이 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인출 등의 방법이 빠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 수법이 금융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갖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급의 송금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 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단독과제에 힘입어 2019년 3만517건에서 2020년 1만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한 대면



최근 계좌 송금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찾아 돈을 건네게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법안이 발의됐다.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며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

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 '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금인출기(ATM)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하고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 편취 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각종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형 기자

푸본현대·동양생명, 부당한 '전환계약'

기존 계약 소멸 뒤 한 달 내 새상품 계약
과징금 각각 1억4500만·5700만원 부과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종료)된 고객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새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당국에 달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두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 부당 전환)' 혐의를 저질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환계약 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은 계약자가 기존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양생명은 180건 중 106건을, 푸본현대생명은 208건 중 144건을 청약하게 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과징금 1억4500만원, 푸본현대생명에 5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학형 기자

대한민국 경제 희망 ON

대한민국 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한민국 기간산업 지원용 **기간산업 안정기금**
-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용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회사채시장 안정화 지원용 **기업유동성 지원기금**
- 혁신/벤처 기업 지원용 **스타트업 위기극복 프로그램**

KDB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운영감사인 심의명 제2020-08-005호(2020.08.25-2021.08.24)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및 일부 상품에 대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성 상품의 경우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기업대출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